

전남, '소담스퀘어' 유치...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국비 45억원 확보...라이브커머스·AI 교육 500개사 이상 대상 디지털 전환 거점 구축

전남도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디지털커머스 거점을 확보하며 판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진흥원이 추진한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신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으로, 라이브커머스 송출 스튜디오와 교육·회의 공간 등을 갖춘 인프라를 기반으로 온라인 판매 역량을 높이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역 지상파 방송사 주관으로 시군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남도장

터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에 나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남도는 향후 6년간 총 4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목포문화방송 사옥과 인근 보해 상가에 714㎡ 규모의 라이브커머스 전용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500개사 이상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AI커머스 교육, 특화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온라인 판매 경험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습 중심 교육과 콘텐츠 제작 지원을 병행해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남도는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앞서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권·지자체 상생협력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판로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커머스 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매출 확대와 자생력 확보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소담스퀘어 조감도

콘텐츠 인재 300명 키운다...창작 지원 '전방위 확대'

콘진원, 웹툰·게임·영상 등 전분야 포괄 지원체계 구축 멘토 150명 참여...기획부터 제작·사업화까지 밀착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산업 성장 기반을 넓히기 위한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낸다.

5일 콘진원에 따르면 '2026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교육생 300명을 15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올해로 15년째를 맞은 대표 콘텐츠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총 4295명의 창작자를 배

출하며 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해왔다.

이번 사업은 지원 범위와 구조 모두에서 한층 확장된 것이 특징이다. 일부 장르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드라마·영화·웹툰·게임·음악·공연 등 콘텐츠 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산업 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형 창작 인재 양성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교육은 현장 중심으로 운영된다.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 '메이드 인 코리아'의 박준호 총괄 프로듀서를 비롯해 영화·웹툰·게임·음악 분야 전문가 150명이 멘토로 참여해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실무형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통해 즉시 산업에 투입 가능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뒀다.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웹툰 '중증의상 센터 : 골든아워'의 흥비치라 작가와 영화 '파묘'의 장재현 감독, 드라마 '이성찬 변호사 우영우' 문지연 작가 등 주요 창작

자가 해당 사업을 거쳐 배출됐다. 최근에도 웹툰 '덴서' 안영일 작가, 게임 '난세표류기' 고용성 개발자 등이 후속 지원을 통해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올해는 교육 이후 단계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최근 5년 이내 수료생을 대상으로 영상·웹툰·게임 분야 후속지원 사업을 별도로 운영해 약 30개 프로젝트를 선발한다. 선정 작품에는 제작·유통 연계, 투자 유치, 전문 자문 등이 제공돼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콘진원 관계자는 "콘텐츠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인재 양성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환율방어 등에 외환보유액 40억달러 감소

11개월만에 최대폭...세계 12위 두단계 하락

외환보유액이 달러 강세와 외환 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난 달 40억달러 가까이 줄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36억6000만달러(약 641조원)로, 전월보다 39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월(-49억9000만달러)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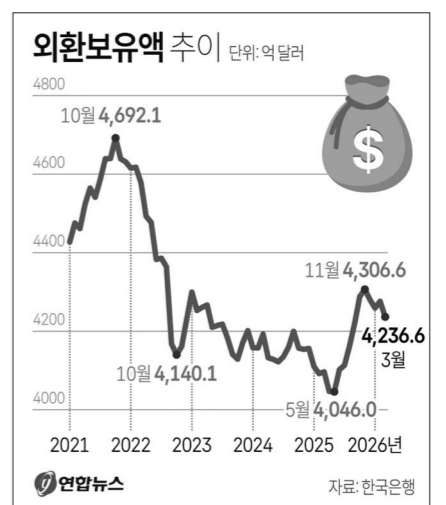
외환보유액은 지난 2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신규 발행 등으로 3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자산별로는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776억9000만달러)이 22억6000만달러 축소됐다.

예치금(210억5000만달러)과 IMF(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155억7000만달러)도 각 14억4000만달러, 2억달러 줄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2월 말 기준(4276억달러)으로 세계 12위 수준이



다. 1월 10위에서 한 달 사이 두 계단 떨어졌다.

중국이 3조4278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4107억달러)·스위스(1조1135억달러)·러시아(8093억달러)·인도(7285억달러)·독일(6633억달러)·대만(6055억달러)·이탈리아(5012억달러)·프랑스(4950억달러)·사우디아라비아(4763억달러)·홍콩(4393억달러)이 2~11위에 올랐다.

염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동화 속 상상력이 3D 영상으로 구현

동화 속 상상력이 실시간 3차원(3D) 영상으로 눈앞에 펼쳐진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시청 1층 로비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AI 실증·체험관'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체험관은 광주시가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핵심 성과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 사업을 통해 광주시는 인공지능 기반 메타버스 기술과 콘텐츠 제작 도구, 가상 스튜디오 구축 등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연구개발특구 기반 지원 사업으로, 지역 핵심 기술의 기획과 연구개발(R&D)을 통해 자생적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체험관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 관람을 넘어선 '참여형 스토리텔링' 기술이다. 아이들이 동화의 전개 방향을 직접 선택하면 그 결과가 실시간 3차원(3D)



광주시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두 달간 시청 1층 로비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AI 실증·체험관'을 운영한다.



영상을 구현되는 방식으로, 이야기 해→선택→결과→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프리뷰 동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삽화와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이를 짧은 영상으로 자동

생성하는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솔루션이 적용됐다.

삽화에서 문자를 추출해 사건 흐름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서사를 기술전결 구조로 자동 분할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또 주요 장면을 선별해 예고편 형식의 몰입도 높은 영상으로 구현함으로써 교육과 콘텐츠 산업 전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스토리텔링 방식을 제시한다.

체험은 1팀당 10명 내외로 운영되며, 약 5~10분가량 소요된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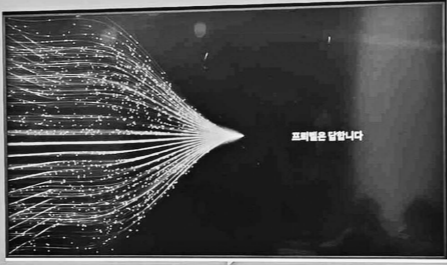
롭게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는 시청사를 시민을 위한 기술 실증 공간으로 개방해 인공지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 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손두영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 체험관은 기술을 보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GIST x 스페셜 AI 체험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중진공 'CEO 명품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시부터 자산관리까지...10주 과정 실전형 커리큘럼 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은 오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제27기 CEO 명품아카데미' 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중소기업 CEO와 임원 등

약 50명을 대상으로 10주간 매주 목요일 진행된다.

교육은 '인공지능이 다시 쓰는 산업과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기술과 경영 전략을 결합한 실전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됐

다. 생성형 AI,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AI 비즈니스 모델 등 최신 기술을 반영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내용이 중심이다.

경제 분야 강의도 강화됐다. 박정호 교수, 오태민 교수, 박병창 이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본시장 흐름과 가상자산, 투자 환경 변화 등 최근 금융 트렌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이와 함께 이동환 대표의 건강관리 특강을 통해 경영자의 스트레스 관리와 조직 생산성 향상 방안을 제

시하고, 김용진 피아니스트의 클래식 강연을 통해 감성적 리더십과 문화적 소양을 접목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전경훈 호남연수원장은 "AI와 경제, 건강, 예술을 아우르는 이번 과정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필요한 통합적 역량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지역 기업의 지속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cdw0919@gwangnam.co.kr

광주시, 예비창업가·창업기업 맞춤 지원

기술기반·기술이전 등 3개 사업 24일까지 대상자 모집

광주시가 올해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지역 예비창업가와 창업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내년 1월까지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예비창업가 발굴·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10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기술기반 예비창업가 지원사업 △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오는 24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기술기반 예비창업가 지원사업'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예비창업가 10명을, '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지원사업'은 대학의 우수 기술을 활용한 예비창업가 10명을 각각 선발해 지원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시제품 제작과 기술이전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창업 기본 교육과 기업투자설명회(IR) 기초교육, 선배 창업가의 노하우 전수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해 창업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비창업가 후속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관련 지원사업 수혜 기업 가운데 우수기업 4개사를 선발해,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기술 및 제품 고도화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테크



광주시는 내년 1월까지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예비창업가 발굴·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노파크와 아이플러스 광주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광주테크노파크 창업성장센터(062-239-9613~4)로 문의하면 된다.

오영걸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지역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창업 생태계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창업 중심도시' 광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사업과 연계해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창업 3년 이내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과 거주공간, 기술 고도화 자금 지원도 병행한다.

사무공간은 '아이플러스 광주' 내 22개 실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공실 발생 시 즉시 모집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